

Vol.47

FEBURARY
2020

02

끊임없는 성장의 지침,
HRD는 '과정'이다

| HRD 2월의 이슈 |

-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
-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 2020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과정 확대

과정 평가형 자격 교육 훈련과정 | 2020년 기준

438개 기관
1,187 과정 선정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 가능 훈련과정 | 2020년 기준

14,124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수 | 2019.12

51.6만 명 증가



뜻을 세운다는 것은 목표를 선택하고
목표에 도달할 행동과정을 결정하고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결정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_마이클 헨슨





cover story

당신의 끊임없는 성장 과정,
HRD가 언제나 함께합니다.

통권 제47호

발행일 2020년 2월 11일

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소 (우)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품질향상센터

전화번호 052-714-8322

구독신청 및 문의 1999sss@hrdkorea.or.kr

디자인·인쇄 디자인글꼴

Contents

정책동향

- 04 고용노동부,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06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작합니다!
- 07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할 수 있는 1만 4천여 개 훈련과정 선정
- 08 2020년 과정 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 과정 확대
- 09 2020년 일자리 정책방향

현장동향

- 10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 10 2020년 1월2월 「이달의 기능 한국인」 선정
- 11 코리아텍 ‘글로벌 직업교육대학 협의체’ 포럼 개최
- 11 국내 유일 반도체 특화 대학 출범
- 12 2020년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참여대학 크게 늘어나
- 12 한국기술교육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컨퍼런스 개최’
- 13 NCS 개발·개선 의견 ‘NCS 위키’를 통해 상시 접수
- 14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입법예고(2.1~3.12)
- 14 경력단절여성,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취창업 도움 받으세요
- 15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발표
- 16 2020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을 선정한다
- 16 「제4차 평생학습체제 법령 포럼」 개최

HRD통계

- 18 2019년 12월 고용동향

연구동향

- 20 과정평가형 자격 모니터링 개선방안 연구
- 20 고용서비스 사업 심층평가 - 공공고용서비스 사업의 품질개선 방안 (여성일자리 중심으로)
- 21 경북형 고졸취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 유입·정착 모델 기본계획 수립
- 21 국가기술자격법령 전면개정 방안 검토

기관동향

- 22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 23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고용노동부,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0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안내합니다.

» 2019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일요일은 제외

• 5인 미만 월 11만 원 지원, 5~30인 미만 월 9만 원 지원,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은 자비
부담률 경감

1.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

◆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 확대적용('20.1.1.부터)

- 50~29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 적용
 - **현행** 300인 이상 적용
 - **개정** 50인 이상 적용
-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 민간기업에도 단계적으로 적용
 - **현행**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 미적용
 - **개정**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법정 유급휴일 적용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 자금 계속 지원('20.1.1.부터)

- 2019년에는 월 평균보수 210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였으나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20년에는 월 평균보수 215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
 - 지원금액은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2.87%)을 고려하여 노동자 1명당 월 9만 원이며, 5인 미만 사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도 계속

3.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①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운영되었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20.1.1.부터)

②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 가능

- 유효기간을 기존 '1~3년'에서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하여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 가능
- 지원한도도 유효기간 연장에 맞추어 현행 '200~300만 원'에서 '300~500만 원'으로 상향조정
- 훈련비 자비부담률*은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
 - **현행** 실업자 ➡ 30% 수준, 재직자 ➡ 0~40%
 - **개편**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15~55%

③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4.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 **고령화에 따라 비중이 증가하는 5·60대 신중년들이 퇴직 전에 미리 인생의 2·3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조성('20.5.1.부터)**

-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퇴직 등 이직 예정인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노력 의무 부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예시: 1,000인)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

*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

5.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①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 확대**

- 기간 지원되지 않았던 취업성공패키지 II유형에 참여한 중장년과 일반고 특화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은 지급요건에 맞는 대상자를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 지원

②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사람부터 적용**

• 1인당 월 60만 원씩 6개월 단위로 지원되며, 연간 지원 규모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20만 원, 대규모기업은 360만 원

6.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고용 시 장려금 지원

◆ **정년이 도래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 장려금 지원('20.1.1.부터)**

- 정년제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한 경우, 제도시행일로부터 2년간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을 지원
-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센터에서 분기별로 장려금 지급신청

• 정년폐지, 정년연장(1년 이상), 정년의변경없이 정년이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

7. 가족돌봄휴가 신설

◆ **가족돌봄휴가(무급) 신설('20.1.1.부터)**

- 노동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 사용가능
- 가족의 범위도 조부모와 손자녀를 포함하여 확대 지원
 - **현행**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 **개편** 조부모, 손자녀도 포함

• 가족돌봄휴가 기간(최대 10일)과 가족돌봄휴직 기간(최대 90일)의 합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8.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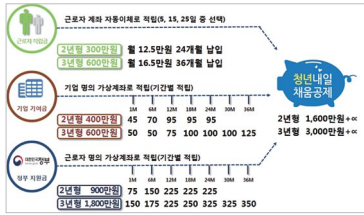
◆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이 상향 조정('20.1.1.부터)**

- **현행** 총 구매액의 1,000분의 3(근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69호)
- **개편** 총 구매액의 1,000분의 6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작합니다!



* **뿌리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뿌리기술(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인 중소·중견기업

• **기존** 취업 후 3개월 이내 가입 신청 ⇒ **개선** 6개월 이내 가입 신청

* 중도해지시 본인적립분(전액) 및 정부지원금 일부(2년형 50%, 3년형 30%) 지급, 기업적립금은 미지급

** **기존** 가입 6개월 내 해지시 미지급 ⇒ **개선** 가입 12개월 내 해지시 미지급

* **기존** 월 500만원 ⇒ **개선** 월 350만원

** **기존** 모든 중견기업 ⇒ **개선**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기업

• **기존**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으로 이직 후 6개월 이내 취업할 경우 1회 재가입 가능 ⇒ **개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을 재가입 가능 사유에 추가

• **기존** 임금체불명단공개 기업,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 청년공제 대상 제외 ⇒ **개선** 연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 추가

신규가입 13만 2천 명 지원(지난 해보다 3만 2천 명 증가)

» 2020년 1월 2일, 고용노동부



■ 청년내일채움공제(약칭 청년공제)란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같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

· 2년형 1,600만 원 = 청년 300만 원 + 기업 400만 원<정부지원> + 정부 900만 원

· 3년형 3,000만 원 = 청년 600만 원 + 기업 600만 원<정부지원> + 정부 1,800만 원

-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과 해당 기업은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가입 신청 가능

■ '20년 청년공제 사업은 장기근속을 촉진하고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일부제도가 개편 시행될 예정

1. 3년형은 뿌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가입 신청 가능

◆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에 해당하나, 높은 이직률(6.9%, 2017년), 낮은 청년 비중(29세 이하 11.2%, 2017년) 등을 감안하여 우대 지원한 것

2. 가입 신청기간이 취업 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

◆ 청년이 해당 기업에 장기 근무할지, 청년공제에 가입할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신청기간 연장

3.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 지급하지 않는 기간 연장**

◆ 조기 이직의 유인은 줄이고,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4.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 임금 상한*이 낮아지고,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축소

◆ 대·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당초의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제한된 예산하에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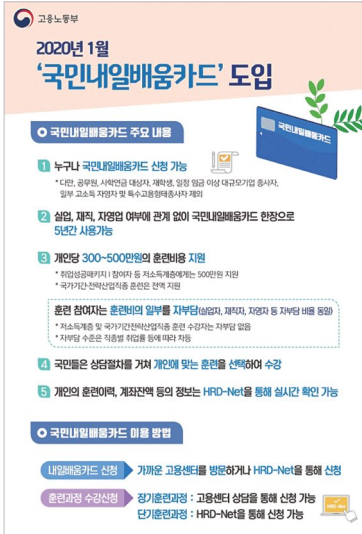
5.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한 경우에도 재가입 가능

◆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이직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

6. 연 3회 이상 임금 체불한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

◆ 노동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청년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기업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할 수 있는
 1만 4천여 개 훈련 과정 선정



• 2019년 상반기 187개에 비해 143% 증가

• ‘홍보(마케팅), 문화 예술 경영, 공연 예술’ 등 476개 선정(지난 해와 비교했을 때 28.3% 증가)

• 재직자 훈련과정은 2019년 상반기 4,992개에서 올해 7,425개로 증가했으며 140시간 단기 과정은 4,701개에서 6,998개로 증가

- 인공지능, 빅 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 분야 훈련과정 2배 이상 증가
 - 홍보(마케팅) 등 청년 선호 훈련과정도 약 30% 증가
- ▶▶ 2020년 1월 2일, 고용노동부·한국기술교육대학교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이문수)은 2020년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할 수 있는 훈련과정 14,124개를 선정

· 사업주 위탁 훈련과정은 3,118개 선정

- 2020년은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도입된 첫해인 만큼 기업의 훈련 수요를 반영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 분야의 훈련과정을 우선 선정했고 청년이 선호하는 홍보(마케팅) 등 훈련 과정을 선정하는 데도 초점을 맞춤

■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고 성과 평가에 중점을 둔 이번 심사 결과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1. 신기술 분야의 훈련과정이 지난 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 1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라 훈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빅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등 신기술 분야의 훈련과정을 455개 선정
- 2 이 중 ‘정보보안 시스템 전문가 양성’, ‘은행권 공동 공개(오픈)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 기술(핀테크) 개발자 양성 과정’ 등 67개 과정은 취업률이 70% 이상으로 성과도 우수

2. 청년이 선호하는 훈련과정도 확대

- ◆ 20~30대의 눈높이에 맞춘 훈련과정을 개설하기 위해 게임, 홍보(마케팅), 다중 매체(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분야 훈련과정도 우선·추가 선정

3. 단기 재직자 훈련과정을 확대하고 재직자 직무 역량 강화 지원

- 1 통신기술 등 정보기술(IT) 분야도 많이 포함(409개 과정), 1~2개월 단기 재직자 과정(140시간 미만)이 증가하여 재직자들의 직업 훈련 참여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2 아울러 낮은 성과와 부실한 훈련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훈련과정의 평가관리를 강화하고 산업 현장 의견도 반영
 - 부실한 훈련을 막기 위해 역량이 부족한 기관은 진입을 차단하고 부정 훈련을 했거나 성과가 낮은 훈련 기관은 퇴출
 - 부정 훈련과정(61개), 성과가 낮은 훈련과정(802개) 진입 제한
 - 올해부터는 훈련과정의 심사·선정 단계에 기업·산업계 등 실제 인력 수요자가 참여하도록 제도화 하여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기업이 원하는 훈련과정 중심으로 개설되도록 개선

2020년 과정 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 과정 확대

- 2019년 총 934개 과정 → 2020년 총 1,187개 과정 지정
- 직업계고 62개교 → 87개교, 폴리텍대학 9개 → 32개 캠퍼스 등 학교 대상 집중 확산



▶▶ 2020년 1월 28일,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 「2020년도 과정 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과정 공고」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 과정 평가형 자격 누리집(cq-net.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20년 1월 28일 2020년 과정 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공고*

- 공고된 과정들은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통과한 과정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협의 후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 취업률 28.4%p 더 높음
재직기간 156.1일 더 길
월보수액 24만 7천 원 더 높음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① 정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평가를 거쳐 합격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 필기 위주의 시험만 보고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던 기존의 검정형 자격과 달리 현장 실무 중심의 수업을 충실히 들어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

② 성과 2015년에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참여자 및 취득자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채용된 이들이 현장 실무에 비교적 빠르게 적응하고 있어 기업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자격

- 취업률 등 노동시장 전반적 측면에서 과정 평가형 취득자가 검정형 취득자보다 높은 성과를 보임

◆ 2020년도 과정 평가형 자격 교육·훈련과정은 아래와 같이 총 438개 기관에서 1,187개 과정이 선정

〔2020년도 과정 평가형 자격 교육·훈련과정 선정 결과〕

(단위:개)

구분	계	직업 훈련기관	직업계 고등학교	한국 폴리텍대학	전문대· 4년제대	육·해·공군	기타
기관 수	438 (385)	278 (281)	87 (62)	32 (9)	32 (34)	6 (6)	3 (3)
과정 수	1,187 (934)	759 (685)	281 (147)	51 (20)	64 (49)	29 (29)	3 (4)

*괄호안은 2019년도 수치임

- 공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과정 평가형 자격을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며, 특히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직업계고의 산업기사 자격 취득과정을 대폭 확대(95과정 → 197과정)

· 직업계 고등학교 2020년 총 87개교(지난 해에 비해 40% 증가)에서 281개 과정(지난 해에 비해 90% 증가)이 운영될 예정, 학교당 평균 4,000만 원 내외의 지원금(실습 재료비 등)이 지원될 예정

· 한국폴리텍대학 2020년 총 32개 캠퍼스(지난 해에 비해 3.6배 증가)에서 51개 과정(지난 해에 비해 2.6배 증가)이 운영될 예정

◆ 과정 평가형 자격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은 각 종목별 ‘교육·훈련과정 편성 기준’을 충족하여 교육·훈련을 진행하면서 자체적으로 교육·훈련생을 대상으로 ‘내부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과정 평가형 자격제도의 질 관리를 위해 모든 교육·훈련 기관을 대상으로 ‘외부 평가’ 및 정기적 점검(모니터링)을 진행

2020년

일자리 정책방향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및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 고용안전망 강화 등 2020년 일자리 정책 추진



» 2020년 1월 15일, 관계부처합동

■ 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시장을 둘러싼 환경과 여건이 크게 바뀜

- **인구구조의 변화** 인구증가 규모가 과거 50만 명대에서 20~30만 명대로 크게 줄어들고, 특히 저급까지 증가세를 지속해왔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19년 5.6만 명 감소에 이어 올해는 20만 명대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될 전망 → 인구현실을 감안한 고용률 중심의 지표 전환에 대비 필요
- **산업·일자리 구조변화** ① 산업구조 고도화와 자동화·무인화 등 기술발전, AI의 등장 등에 따라 제조업의 고용창출력 저하, ② 온라인 중심 소비패턴의 변화로 “자영업 구조조정” 확대 등 소비유통 환경 변화, ③ 디지털·플랫폼화 등에 따른 “일자리 구조 변화” 등이 발생 →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확산 및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정책 강화 필요

■ 2019년 고용 회복세가 더 공고화되도록 2020년 일자리 정책방향 마련

1. 민간의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① 투자확대, ② 혁신성장, ③ 규제개혁 등 3대축을 중심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할 예정, 민간-민자-공공 3대분야 100조 원 투자를 발굴·집행하고, 시스템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3대 신산업에 대한 중점 투자

2.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① AI 등 신기술 분야 훈련,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을 확대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등을 통해 전국민의 평생 능력개발을 지원, ② 소비·유통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진출 촉진 및 스마트화 지원, ③ 플랫폼노동 등 비전형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단시간 근로자 등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3.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정책 실시

노인·여성·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 ① 인구정책 TF를 통해 마련한 고령자 고용확대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② 여성은 출산·육아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경력 단절 예방 및 재취업을 지원, ③ 청년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청년 일자리 3대 핵심사업 지원 강화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월 30만 원),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상향(분기당 27만 원 → 30만 원), 고령자·고용연장을 위한 직무재설계·근무형태유연화 등

4. 고용안전망 강화

①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지급액 인상 평균임금 50 → 60%), ②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등을 지원할 예정

고용안정망을 완성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이제와 같이 구직활동을 도와드립니다.
- 취업지원금
- 직업훈련비
- 취업준비비용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 대상
-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자 (청년(19~34세)은 기존 중위소득 120%이하)
- 폐업 영세자영업자, 조력부수급자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약계층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 지원 종료 후 3개월 이내 2회 취업성공패키지 발급 가능
- 영세업자 수급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준 이상의 영세업자, 폐업자, 영세업자
- 영세업자 수급 종료 후 3개월 이내 취업성공패키지 발급 가능
- 지원 종료 후 3개월 이내 2회 취업성공패키지 발급 가능

이제 요건에 해당한다면 구직활동수당도 받을 수 있어요!
50만원에 6개월간 수당을 지원합니다.

만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 + **취업준비 기간에 취업하면** = **영향이 있는 서비스**
- 1년 19~54세까지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
- 2년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19세~34세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 2020년 1월 20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월 20일(월) 오후 2시에 대전고용복지+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공적 도입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여자(취업자 포함), '취업성공패키지' 직업상담사 등 18명이 참석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모색하였는데, 취업성과 제고와 관련하여 ① '취업지원 우수모델' 개발, ② 상담 인프라 확충 및 상담역량 강화를 논의했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지난 해 '취업지원 우수모델' 개발확산을 위해 추진한 '취업성공패키지 시범센터(전주, 포항, 김해, 부산)'의 운영성과 및 '20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였고 특히 상담인프라 확충 및 상담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올해 중형고용센터 31개소와 이동출장소 40개를 신설, 전국 100개의 고용센터와 더불어 구직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① 밀착상담의 중요성, ② 복지연계 강화, ③ 훈련과정 확대, 일경험 신설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충, ④ 구직활동 기간 중 생계지원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운영할 때 현재보다 이러한 부분의 개선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이 제도가 고용안정망으로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취업지원 우수모델' 개발확산, 상담인프라 확충 및 상담역량 강화 등에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주세종기술단 조옥제 대표】



【주썬프레인코 선철근 대표】

2020년 1월·2월 '이달의 기능 한국인' 선정

» 2020년 1월 30일,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전기소방 설계 및 감리 분야 전문 기술인인 (주)세종기술단 조옥제 대표와 가스스프링댐퍼 제조 전문 기술인인 (주)썬프레인코 선철근 대표를 2020년 1월 이달의 기능 한국인과 2020년 2월 이달의 기능 한국인으로 각각 선정했다.

올해 1월 이달의 기능 한국인으로 선정된 (주)세종기술단 조옥제 대표는 전기소방 설계분야에서 지중 케이블 보호관,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연결 장치 등 경쟁 업체와 차별화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이다. 또한 올해 2월 이달의 기능 한국인으로 선정된 (주)썬프레인코 선철근 대표는 승합차에 들어가는 자동차 미션 스페이서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국산화된 기술인으로 가스 스프링 및 댐퍼 분야에 20여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등 기술력이 뛰어나 미국, 일본 등 15개국에 수출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능 한국인 시상식을 마친 후 수상자가족직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두 분의 성공은 뛰어난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하여 해당 분야 최고의 기술인으로 자리매김한 것이 밑거름이 됐다.”라고 하면서 1월 기능 한국인으로 선정된 조옥제 대표와 2월 기능 한국인으로 선정된 선철근 대표를 비롯한 가족직원들에 대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1.16(목)		1.17(금)
제2회 글로벌 직업교육대학 협의체 (TVET-CAMPUS) 포럼 개최		LG화학 등 기업체와 코리아텍 스마트 러닝팩토리 (Smart Learning Factory) 등 우수 첨단시설 견학
양해각서 (MOA. Memorandum of Agreement) 체결		
특강	아시아 기술 발전의 미래 _나성섭 국장 (아시아개발은행)	
세션 1	아세안 국가별 TVET 정책 및 현안 발표 _아세안 5개국 공무원들	
세션 2	글로벌 직업교육대학 협의체 (TVET-CAMPUS) 이사회	

코리아텍 '글로벌 직업교육대학 협의체' 포럼 개최

» 2020년 1월 16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충남 천안의 코리아텍(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이성기)은 1월 16일(목) 서울 영등포 메리어트호텔에서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한국폴리텍대학,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국내외 직업기술대학 총장들과 아세안 TVET 정책 공무원 등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회 글로벌 직업교육대학 협의체(TVET-CAMPUS)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오전에는 TVET-CAMPUS 회원교간 인적교류 확대 및 4차 산업혁명 대비 학술·연구교류를 내용으로 한 양해각서(MOA. Memorandum of Agreement)를 체결하고 나성섭 국장(아시아개발은행)이 '아시아 기술발전의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어 세션1에서는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5개국 공무원들의 '아세안 국가별 TVET 정책 및 현안' 발표, 세션2에서는 글로벌 직업교육대학 협의체(TVET-CAMPUS) 이사회를 열고 TVET-CAMPUS 확대방안 및 회원교간 교류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이튿날인 17일(금)에는 포럼 참가자들이 LG화학 등 기업체와 코리아텍 스마트 러닝팩토리(Smart Learning Factory) 등 우수 첨단시설을 견학했다.

이성기 총장은 "이번 포럼은 글로벌 직업교육대학 협의체 회원교간 정보 및 교류 활성화와 아세안 직업교육훈련 정책 공유로 아세안 통합 성장을 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유일 반도체 특화 대학 출범

» 2020년 1월 15일, 고용노동부-폴리텍대학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석행, 이하 폴리텍) 안성캠퍼스가 「반도체 융합 캠퍼스」로 명칭을 바꾸고 전국에서 유일한 반도체 특화 대학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반도체 융합 캠퍼스」는 전국 최대의 반도체 기업 밀집 지역인 경기도에 위치해 삼성반도체 평택캠퍼스와 에스케이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협력 지구(클러스터)와도 가까워 산학 간 상승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편 폴리텍은 반도체융합캠퍼스와 기존에 반도체 학과가 개설된 캠퍼스를 연계해 '반도체 협력 지구(클러스터)'로 운영할 계획이다. 「반도체 융합 캠퍼스」가 주축이 되고 성남, 아산, 청주캠퍼스는 각각 소재 분석, 후공정, 장비 유지보수 분야로 특화시켜 2025년까지 6,190명'의 반도체 전문인력을 키운다는 목표다.

1월 15일 열린 「반도체 융합 캠퍼스」 출범식에는 국회(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정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지자체(이춘구 안성시장 권한 대행), 산업계(남기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및 기업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갑 장관은 「반도체 융합 캠퍼스」의 출범을 격려하면서 "우수한 인재는 기업을 키우고 기업의 성장은 다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전하며 "반도체는 물론 산업 전반에서 필요로 하는 혁신 인재가 지속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2년제 학위 과정 (2020) 450명 → (2022) 1,320명 → (2025) 2,940명
 기업 맞춤형 재직자 향상 과정 (2021) 500명 → (2023) 1,750명 → (2025) 3,250명



【고속련 일학습병행 운영 모형】

* P-TECH Pathways in Technical Education, oriented
Convergent High technology

2020년 '고속련 일학습병행(P-TECH)' 참여대학 크게 늘어나

▶▶ 2020년 1월 15일,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도제학교 졸업생들에게 전문학사까지 계속해서 지원하는 '고속련 일학습병행(P-TECH)*' 참여 대학이 2020년도에는 35개 대학으로 늘어났다고 1월 15일 밝혔다.

'고속련 일학습병행'은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특성화고)에서 1~2년 동안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기업에 다니면서 전공과 관련된 최신 기술과 이론을 배우며 학위와 자격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17년에 시작한 고속련 일학습병행은 2019년 말 기준 23개 대학(38개 학과)에서 도제학교 졸업생 약 1,40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신규 운영 대학(18개 학과) 선정으로 600여 명이 새로이 참여하게 된다. 2020년 신규 운영 대학은 서류 및 발표 심사를 통해 사업 역량 훈련 운영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받았으며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인하공업전문대·동양미래대 등)을 비롯해 경상권(동원과학기술대), 충청권(폴리텍 청주), 전라권(동강대, 군장대) 대학이 추가 선정되면서 전국적으로 참여 범위가 확대됐다.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고교부터 일학습병행을 시작한 도제학교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전문 지식과 기술을 계속해서 높일 수 있도록 전문대학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기술 인력으로 크고자 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면서 경력 개발을 쌓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기술교육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컨퍼런스 개최'

▶▶ 2020년 1월 21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충남 천안의 한국기술교육대학교(코리아텍, 총장 이성기) 능력개발교육원(원장 남병욱)은 1월 21일(화) 서울드래곤시티 컨벤션타워에서 직업훈련교·강사 및 직업계고 전문교원 등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직업훈련교·강사 및 직업계고 전문교과 교원의 역량강화와 신기술·융합 교육과정 확산을 위해 개최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등 주요 외부 인사도 참여했다. 이날 오전에는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TechEdu 4.0 :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과학기술교육'을 주제로, 이기권 인하대학교 초빙교수가 '포노사피엔스 시대의 노동시장과 직업훈련'을 주제로 각각 기조강연을 펼쳤다. 오후에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 6개 트랙(Track)이 진행되었는데, 각 트랙별로 미래 기술 방향과 산업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국내외 산·학·연·관 전문가들의 주제발표 2개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 분야별 교육과정 우수 운영사례를 발표했다.

이성기 총장은 "우리대학은 세계 최초 5G 기반 스마트러닝 팩토리(Smart Learning Factory)를 비롯한 최첨단 교육 및 실습시설을 통해 재학생과 재직자들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기관으로 더욱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NCS 개발·개선의견 'NCS 위키'를 통해 상시 접수

» 2020년 1월,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원장 박계영)은 NCS 개발·개선의견 상시온라인 접수를 위한 NCS위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NCS위키란 산업현장, 교육훈련, 자격 등 NCS 활용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개설된 NCS 개발·개선 의견수렴 창구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미래유망분야 등 NCS 신설이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자격·채용 등 활용과정에서 NCS 개선이 필요한 경우, NCS 오류 수정 등 기타 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누구나 NCS위키를 통해 쉽게 NCS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을 희망하는 사람은 NCS 홈페이지(www.ncs.go.kr) 내 위키 페이지에 접속, 첨부된 양식에 맞춰 내용을 작성한 후 의견을 제안하면 된다.

제안된 의견 중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NCS 개발·개선의견은 검토회의를 진행하며, 최종 심의를 통과한 의견은 향후 NCS 개발·개선 사업에 반영된다.

NCS 위키란?

산업현장·교육훈련·자격 등 NCS 활용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개설된 NCS 개발·개선 의견수렴 창구입니다.

NCS 위키= 의견수렴 창구

현장 건의 | 개발 요청 | 개선 요청

의견 처리절차

제안한 의견은 담당자가 접수 후 향후 진행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NCS개발·개선의견은 검토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최종 심의를 통과한 의견은 향후 NCS개발·개선 사업에 반영됩니다.

NCS위키 이럴 때 활용하세요

- 01** 4차 산업혁명 관련 미래유망분야 등 NCS 신설이 필요한 경우
- 02** 산업현장 직무 변화에 따라 NCS 개선이 필요한 경우
- 03** 교육·훈련·자격·채용 등 활용과정에서 NCS 개선이 필요한 경우
- 04** NCS 오류 수정 등 기타 개선이 필요한 경우

NCS위키 제안방법이 궁금해요

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1** NCS홈페이지(www.ncs.go.kr) 접속
- 2** NCS통합 → **3** 위키 → **4** 제안하기

4 제안하기

Q. NCS위키 의견 처리상황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홈페이지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안 검토 전에는 '접수대기중', 검토중에는 '검토진행중', 검토완료 후엔 '답변완료' 로 표시됩니다.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입법예고(2.1~3.12)

» 2020년 2월 1일, 고용노동부

2월 1일 고용노동부는 아직 예정인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업 규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노동자의 범위, 서비스의 내용 등을 정한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해 4월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올해 5월 1일부터는 1,00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아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재취업 지원서비스 의무화 대상 기업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의무 대상 기업	서비스 제공 대상 근로자	서비스 내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000명 이상인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 근로자로 청년, 경영상 사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직예정일 직전 3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상 이유로 퇴직: 이직 전 1년, 이직 후 6개월 이내 생애설계 등 진로설계,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제공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일부 국가가 경영상 이유로 퇴직하는 노동자에 대한 전직 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우리와 같이 정년을 포함한 비자발적 이직자 전반에 대한 의무화 사례는 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번 조치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이들의 노동 시장 잔류 기간 연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력단절여성,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취창업 도움 받으세요

» 2020년 1월 13일,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1월 13일(월) 서울여성플라자(서울 동작구 소재)에서 2020년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주요사업 설명회를 열어 새일센터의 취창업 상담사와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과 함께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2009년부터 시작된 새일센터는 전국 158개소로, 경력단절여성에게 맞춤형 취업상담 및 정보제공,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며 경력 단절여성의 역량 강화와 고용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직업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취업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기술, 기업맞춤형, 취약계층 과정 등 교육 새일역량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인-구직 매칭 인턴십 연계 동행면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자 상담 및 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장적응교육, 멘토링 등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평등교육, 환경개선지원 등

경력단절예방 사업은 재직 여성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상담 및 경력개발 자문 등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기업에게는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과 근로 상담, 여성화장실, 수유실 등 근로 환경개선을 지원한다. 현재 일하는 여성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대학생,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포함하고 기업 방문 등 찾아가는 예방서비스를 전국 60개소 새일센터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그동안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취업 지원과 직업훈련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는 새일센터를 종합적인 취창업지원서비스 기관으로 내실화하고 개인별 취업 역량 및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취업 정보와 창업 훈련 등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66

앞으로는 새일센터를 종합적인 취창업지원서비스 기관으로 내실화하고 개인별 취업 역량 및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취업 정보와 창업 훈련 등을 제공하겠다

99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발표

» 2019년 12월 17일,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는 미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전망치를 제시하는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발표하였다. 앞으로 10년간 15세 이상 인구는 증가(+191만 명)하는 반면 15~64세 인구는 260만 명 감소하며 60세 이상 인구 증가(+505만 명)가 전체 인구 증가를 주도할 전망이다.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은퇴 시기 연장,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등으로 앞으로 10년간 124만 명 증가가 예상된다. 인구 증가는 둔화되지만 고학력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경제 성장에 따른 인력수요 증가로 모든 연령층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15세 이상 취업자는 앞으로 10년간 128만 명 증가(고용률 +0.3%p)하나, 인구증가 둔화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2027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인력 수요(취업자) 전망

산업별 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 증가(+145만 명)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15만 명)과 '정보통신업'(+12만 명)은 디지털화 등 기술발전의 영향으로 증가
- 공공서비스 수요 증대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증가(+13만 명)
- '도·소매업'(+9만 명), '숙박·음식점업'(+13만 명)은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 증대, 내수시장 확대에 점진적으로 증가

제조업 취업자(+6.5만 명)는 경제 규모 확대와 소득향상의 영향으로 증가하나, 그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세계성장률 둔화, 산업 구조조정 등)이다.

- '전자(+2.5만 명)' 업종은 빅데이터 처리용 메모리, 반도체 생산 확대에 증가, '의료·정밀기기(+2.8만 명)', '의료용 물질·의약품(+1.3만 명)' 업종은 헬스케어 등 보건 수요 확대에 증가
-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1.1만 명)'는 취업자 증가 추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고용 규모가 큰 '자동차, 트레일러(+1.8만 명)'는 소폭 증가하고, '기타 기계 및 장비(+0.2만 명)'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직업별 숙련 수준이 높은 전문가가 가장 크게 증가(+63만 명)하고, 기능원(+0.5만 명), 장치 기계 조립 종사자(-4.2만 명) 등은 기술발전, 자동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 축소 또는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 직업별로 돌봄·보건(+14.7만 명), 컴퓨터 시스템·소프트웨어(+5.8만 명)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섬유·가죽 기능 종사자(-2.1만 명), 교수 및 강사, 학교 교사(-2.8만 명) 등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인력 수급차 전망

학령인구 감소로 앞으로 10년간 신규 인력이 부족(-38.5만 명)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고졸자(-60만 명), 대졸자(-45만 명)는 초과 수요인 반면, 전문대(+64만 명)는 기술 발전 등으로 중간 숙련 수요가 감소하면서 초과 공급될 전망이다.

- ※ 고교 졸업생 큰 폭으로 감소(2018년 57만 명 → 2028년 40만 명, -16만 명)
→ 대학 정원(2018년 50만 명) 대비 약 10만 명 적을 것으로 예상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 수요 변화

혁신전략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술발전 속도가 추세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경우에 2020년대 후반기부터 성장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전체 취업자는 2035년에 기준 전망보다 48만 명이 추가로 증가할 전망이다. 산업별로 전문과학기술, 전기·전자, 기계, 정보통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중심으로 취업자 크게 증가하고 고숙련 직업군에서는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나, 저숙련 직업군은 증가 폭이 크게 둔화 또는 감소할 전망이다.

* 비경제활동인구 등의 활용이 가능하므로 전체 노동시장 인력 부족 문제는 아님



2020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을 선정한다

» 2020년 2월 3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월 3일 「2020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앞장서서 개선한 기업을 인정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00개 기업을 선정하며, 2018년 처음 시작한 이래 올해가 세 번째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규모와 일자리의 질을 함께 고려하여 100개 기업을 선정(56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일자리의 질도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기업규모 제한으로 으뜸기업 선정이 불가능했던 20~29인 기업에 대해서도 후보기업 추천(발굴)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보험 자료 분석·국민추천 등으로 후보 기업을 발굴하고, 법외반여부 조회, 현장조사, 노사단체 의견수렴,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선정한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는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가 주어지며, 정기 근로감독 유예, 정책자금 지원, 세액공제,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행정정책 특전을 제공하는 한편, 정부부처 누리집·신문 등에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함께 잘 사는 나라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라고 강조하면서,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포용적인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18~'19년 근로자 30인이상의 기업
→ '20년 근로자 20인이상의 기업

「제4차 평생학습체제 법령 포럼」 개최

» 2020년 1월 30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월 30일(목) 한양사이버대학교 2관 대강의실에서 ‘평생학습체제 수립을 위한 보건복지 교육 관련 법 개정 방안’을 주제로 「제4차 평생학습체제 법령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 김인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평생학습체제 수립을 위한 국가 교육 및 훈련 관련 법령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더불어 한정란 한국노년학회장은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노년교육의 중요성’을, 송기민 한양대학교 교수는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보건복지 교육 관련 법제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김동배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강창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팀장, 김미주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김신영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류지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범경철 경희대학교 교수, 이한복 (주)에버유플 대표, 지은정 한국고령정책연구소 박사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은 “이번 포럼은 평생교육법을 비롯한 교육과 훈련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과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4차 평생학습체제 법령 포럼

평생학습체제 수립을 위한 보건복지 교육 관련 법 개정 방안

2020. 1. 30.(목) 오후 2시 ~ 5시
한양사이버대학교 2관 B01호 대강의실

주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최: 한국노년학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노년교육학회, 한국노년교육진흥회, 한국노년교육진흥원, 한국노년교육진흥협회, 한국노년교육진흥연구소, 한국노년교육진흥연구소, 한국노년교육진흥연구소



시 간	주 최	내 용	주 최
13:30 - 14:00	주 최	주제: 4차 산업혁명시대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 주최: 한국노년학회, 한국노년교육진흥원, 한국노년교육진흥회, 한국노년교육진흥협회, 한국노년교육진흥연구소, 한국노년교육진흥연구소, 한국노년교육진흥연구소	한국노년학회
14:20 - 14:40	주제 발표 1	평생학습체제 수립을 위한 국가 교육 및 훈련 관련 법령 개선 방안 주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인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14:40 - 15:00	주제 발표 2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노년교육의 중요성 주최: 한국노년학회	한정란 (한국노년학회 회장)
15:00 - 15:20	주제 발표 3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법·제도 관련 방안 주최: 한국노년교육진흥원	송기민 (한양대 교수)
15:20 - 15:30	휴 식		
15:30 - 16:45	주 최	평생학습권 보장 관련 법령 개정 방안 주최: 한국노년교육진흥원, 한국노년교육진흥연구소, 한국노년교육진흥회, 한국노년교육진흥협회, 한국노년교육진흥연구소, 한국노년교육진흥연구소, 한국노년교육진흥연구소	강창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팀장)
16:45 - 17:00	질의응답 및 폐회		

본 포럼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cis.go.kr)를 참고하십시오. (주)에버유플은 후원사로 참가합니다.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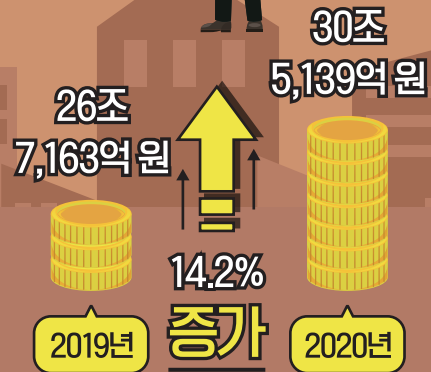


내 삶을 바꾸는 고용노동정책
포용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

고용노동부 예산



**고용안전망
대폭 확충**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2,771억
- 공공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407억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9조 5,158억
- 국민내일배움카드 8,777억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확대 (기존 21만+신규 13.2만 명)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속지원 (기존 20만+신규 9만 명)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신설 246억
- 신종년 경력형일자리 지원 307억
- 알하는 여성출산육아지원확대 1조 5,462억
-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시설 확충 223억
- 장애인 취업지원 강화 (고용장려금) 2,297억, (근로지원인 지원) 948억



**저소득 노동자
지원 강화**

- 체당금 지원 강화 4,335억
 - 일반체당금 상한액 인상
 - 재직자 체당금 신설(10월)
 - 소액체당금 절차 간소화(10월)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추진
- 일자리안정자금 지속지원 2조 1,647억
-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274만 명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1,132억
- 4차산업 혁명 분야 도제학교 시범운영 5개교
- 고숙련 일학습병행 확대 160억
-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403억



**노동시간
단축 지원**

- 추가채용 사업주와 임금감소 노동자 지원 661억
- 현장지원단 지원 확대 24억
- 일터혁신 지원 확대 236억
- 노동시간 단축 정착사업 신설 46억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

- 추락방지 발판 지원확대 554억
- 노후화학설비비 기술지원 확대 569곳
- 근로자 건강센터 증설 174억
- 직업적트라우마 상담센터 운영 8곳
- 산재병원 의료장비 현대화 61억
- 직장 내 상호존중문화 형성 13억

2019년 12월 고용동향

고용노동부, 2019



-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 명)**
(18연간)9.7 (19.1/4)17.7 (2/4)23.7 (3/4)36.6 (11)33.1 (12)51.6
- **실업률(%)**
(19.8)3.0 (9)3.1 (10)3.0 (11)3.1 (12)3.4(0.0%p)
<12월기준 '17년 이래 최저>

주요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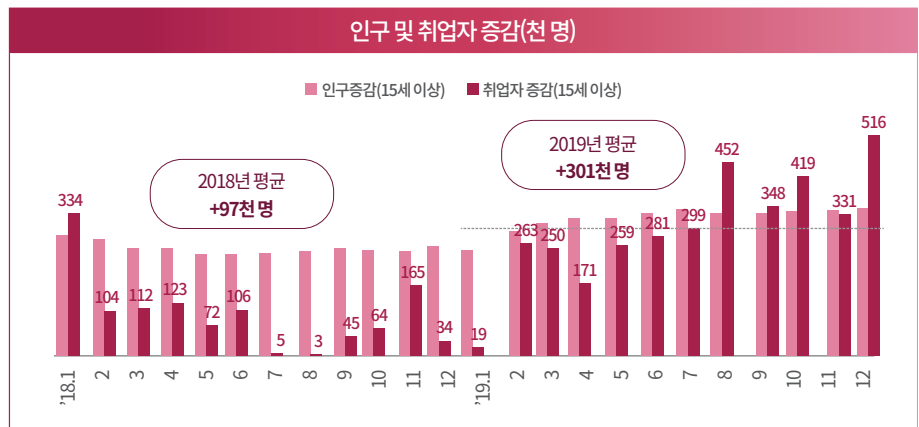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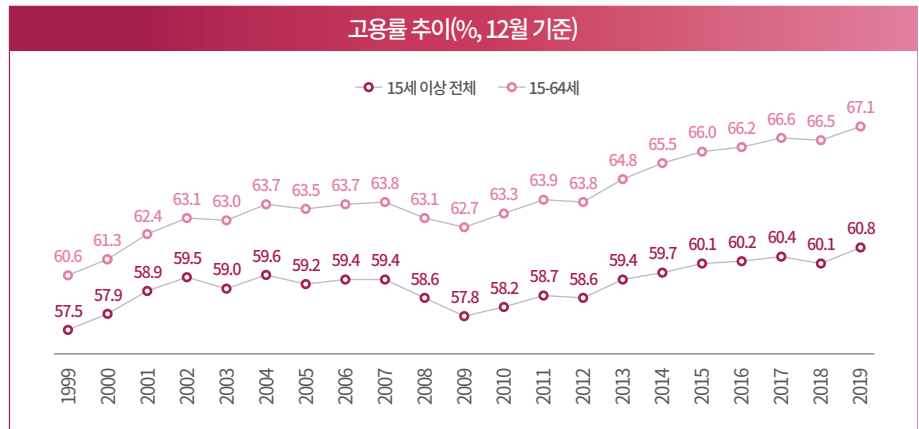
- ❖ ('19.12월) 취업자는 서비스업 증가세 확대 등에 힘입어 '14년 8월 이후 64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인 51.6만 명 증가
- ❖ 고용률(15세이상 +0.7%p, 15~64세 +0.6%p) 상승, 실업률 보합
- ❖ 생산가능연령(15~64세)에서 인구가 3.1만 명 감소했음에도 취업자는 20.8만 명 큰 폭 증가하며 고용 개선을 견인
- ❖ 30대 취업자가 27개월만에 증가 전환(+0.2만 명)하고, 상용직 증가폭이 60만 명을 상회하며 상용직 비중 역대 최고치 기록

취업자 및 실업자

12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51.6만 명 증가('14.8월 이래 가장 큰 증가폭)

- 제조업 수출 감소세 완화 등 영향으로 취업자 감소폭 축소
- 건설업 건설투자 부진에도 기저효과 등으로 취업자 감소폭 축소
-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 50만 명 상회('14.4월 이래 최고치)

실업자는 전체인구 증가(+34.5만 명)에도 불구하고, 5개월 연속 감소(▲0.3만 명)하며 94.2만 명을 기록, 12월 기준으로 '17년 이래 최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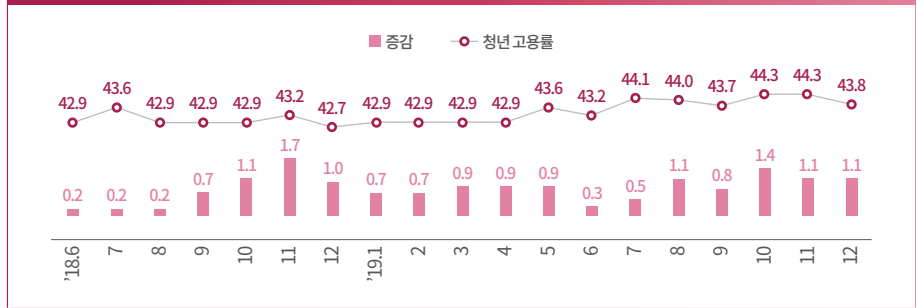
청년(15~29세) 고용

청년층(15~29세)은 인구 감소(▲8.7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세(6.9만)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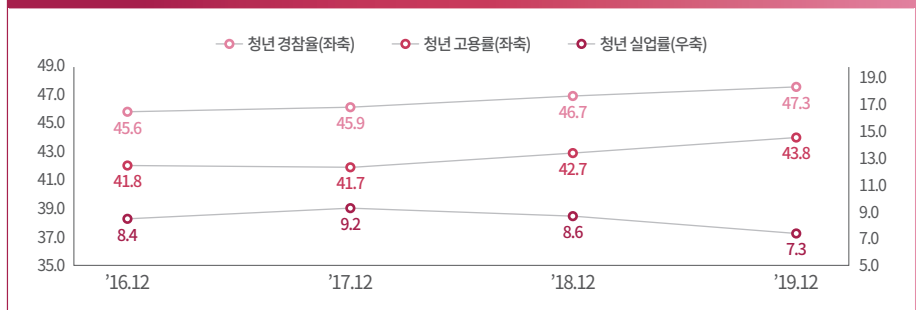
- 청년층 고용률은 19개월 연속 상승(+1.1%p), 실업률은 큰 폭 하락(▲1.3%p), 청년층 확장실업률도 하락(▲1.8%p)

- **청년고용률('18.12 → '19.12, %)**
42.7 → 43.8 (+1.1%p) <12월기준 '05년 이래 최고>
- **청년실업률('18.12 → '19.12, %)**
8.6 → 7.3 (▲1.3%p) <12월기준 '07년 이래 최저>

청년층(15-29세) 고용률 및 증감(% , %p)



청년층 고용률·실업률·경감률(%)



• 취업자 증가(전년비, 만 명)

(’18 연평균) +9.7 → (’19.1~12월 평균) +30.1

월별추이

(’19.1)1.9 (2)26.3 (3)25.0 (4)17.1 (5)25.9 (6)28.1 (7)29.9 (8)45.2 (9)34.8 (10)41.9 (11)33.1 (12)51.6

• 15세이상 고용률(%)

(’17)60.8 (’18)60.7 (’19)60.9(+0.2%p)
<역대최고치, ’97년 등을>

15~64세 고용률(%)

(’17)66.6 (’18)66.6 (’19)66.8(+0.2%p)
<통계발표 이래(’89년~) 최고>

• 실업자(만 명)

(’13) 80.8 (’14)93.9 (’15)97.6 (’16)100.9 (’17)102.3 (’18)107.3 (’19)106.3

• 상용직증감(만 명)

(’19.8)3.0 (9)3.1 (10)3.0 (11)3.1 (12)3.4(0.0%p)
<12월기준 ’17년 이래 최저>

↳ 상용직비중(12월 기준, %)

(’16)66.4 (’17)67.4 (’18)68.6 (’19)69.5

• 고용보험피보험자증감(만 명)

(’16)34.9 (’17)30.6 (’18)35.8 (’19)51.0

• 청년 고용률 43.5%(’06년 이후 최고)

여성 고용률 51.6%(역대 최고)

65세이상 고용률 32.9%(’89년 이후 최고)

• 40대 고용률(%) (’15)79.1 (’16)79.3 (’17)79.4 (’18)79.0

(’19) 78.4 (▲0.6%p)

• 제조업 취업자증감(전년비,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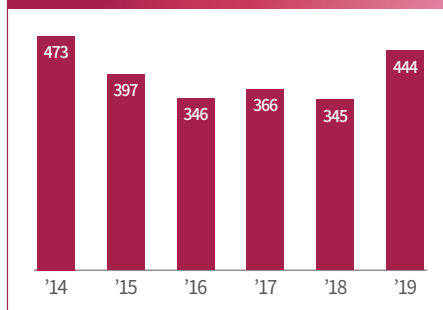
(’15)14.6 (’16)▲2.1 (’17)▲1.8 (’18)▲5.6 (’19)▲8.1

평가 및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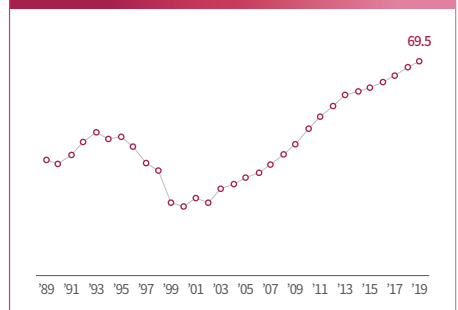
’19년 고용은 양적·질적으로 뚜렷한 회복흐름 시험

- 취업자 증가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18년 9.7만 명의 3배 수준인 30.1만 명을 기록
- 고용률은 15세이상과 15~64세에서 모두 역대 최고수준 기록, 전체 실업자가 ’13년 이후 감소 전환하며 실업률은 보합
- 고용의 질 측면에서도 상용직 근로자 비중 역대 최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규모 12년만에 최대폭 증가

상용직 증감 추이(천 명)



상용직 비중 추이(%)



- 청년·여성·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고용여건도 개선
- 다만, 40대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 확대

고용시장이 크게 회복되며 반등하였으나, 향후 고용여건은 인구 둔화 가속화, 산업·일자리 구조변화 등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

- 고용 회복흐름이 지속확산될 수 있도록,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경제·고용여건 개선에 총력을 다하고, 중장기 구조개혁·미래성장동력 발굴 등도 차질 없이 추진



과정평가형 자격 모니터링 개선방안 연구

▶ 한국산업인력공단, 2019

조세형, 김한나, 유대훈, 장세미, 최민용

목적

- 과정평가형 자격의 모니터링 운영 및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운영 체계화, 모니터링 운영 위원 간의 명확한 역할 규정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매뉴얼 개발 필요

주요내용

- 과정평가형 자격 모니터링 운영 현황 및 실태분석
 - 과정평가형 자격 모니터링 관련 선행연구, 국내 유사사례 등 문헌자료를 분석하고, 모니터링 현장 참관 및 인터뷰를 통해 모니터링 개념, 지표, 운영, 위원, 전산 등의 실태 파악
- 과정평가형 자격 모니터링 개선방안 마련
 - 모니터링 개념, 지표, 운영, 위원, 전산 등의 실태를 심층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통적인 개선방안으로 ‘모니터링 세부점검표 및 매뉴얼 구체화’ 도출
 - 매뉴얼 개발 시 중점 사항으로 점검과 컨설팅의 병행(지표구분), 위원별 확인 지표의 구분 및 구체화, 지표별 체크리스트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지표별 컨설팅 가이드 등 제시



고용서비스 사업 심층평가 - 공공고용서비스 사업의 품질개선 방안(여성일자리 중심으로)

▶ 한국고용정보원,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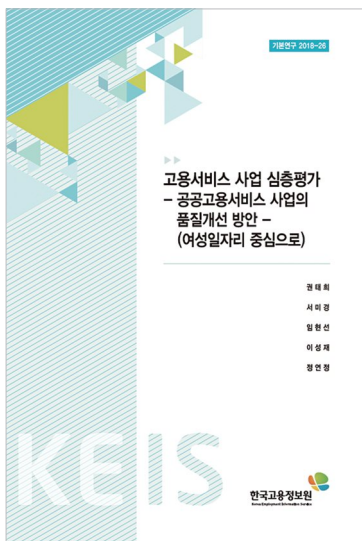
권태희, 서미경, 임현선, 이성재, 정연정

목적

- 다양한 정책투입과 재정지원에도 전체 여성고용률이 부진(50.8%, 2017)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여성일자리사업의 효율화 방안 마련

주요내용

- 재정일자리사업평가 대상사업 34개 중 대표적 수행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여성경제활동촉진 지원 사업(집단상담서비스)’, ‘직접일자리사업(새일인턴)’, ‘직업훈련사업(여성구직자훈련)’에 관한 효과성 심층분석
- 고용서비스사업의 여성참여자 현황과 구직자 특성 분석
 - 전체 고용서비스 참여자 대비 여성 비율, 연령별, 지역별 현황 분석 및 참여빈도가 높은 5개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 고용보험DB와 e새일 DB 연계분석을 통한 여성구직자의 특성과 취업성과 분석
- 고용서비스사업의 수행기관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업무체계 개선, 종사자 근로 처우 개선 등 실질적인 시사점 도출





경북형 고졸취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 유입·정책 모델 기본계획 수립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9

💡 유한구, 채창균, 최영섭, 조희경, 송선혜



목적

- 청년층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경상북도의 기본계획을 수립

주요내용

- 경상북도의 고졸취업 현황의 파악
- 경상북도의 고졸취업 지원체계의 마련
- 경상북도의 고졸자 대상의 생애단계별 지원 방안의 수립
- 고졸청년의 학위, 취업, 주거, 결혼, 자녀 출생까지 생애주기별 체계적인 패키지 지원을 통한 청년의 유입정책을 도모하고, 사교육, 중소기업 구인난, 대졸 실업, 저출생 등 각종 사회문제의 해소를 통해 국가의 지속 발전을 실현 하는 국민운동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초 마련



국가기술자격법령 전면개정 방안 검토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9

💡 최영렬, 김상진, 윤여인



목적

- 국가기술자격법령의 체제를 정비하고, NCS 도입에 따른 과정평가형자격 및 '제4차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기술자격법령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 마련

주요내용

- 국가기술자격에서 검정형자격과 더불어 과정평가형자격을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자격신설 단계부터 검정형자격과 과정평가형자격 중 선택 운영 또는 동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기술자격 재정비
- "제4차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 기본계획"의 내용 반영



1.1. 2020년 훈련과정 통합심사 결과 공고

1.14. 2020년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참여대학 현황 발표

1.15. 폴리텍 안성캠퍼스 반도체 융합 캠퍼스 출범식

1.28. 2020년도 과정평가형 자격교육·훈련과정 공고

1.30. 이달의 기능한국인(1,2월) 시상식 개최

1.12. 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공모전 시상식

2월 4차산업분야 훈련과정 운영 도제학교 선정 결과 발표(2월)

1.21. 제53차 울산지역 공공기관 감사협의회 개최

1.21. 고용부-공단-인자위지원센터 정례회의 개최

1.22.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기관 선정 최종심의 위원회 개최

1.22. 중소기업 훈련지원센터 최종심의위원회 개최

1.29.~30. '20년 제1차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심의위원회 개최

2.3. 현장맞춤형 체계적훈련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2.4. 공단-청년재단 업무협약 체결

2.27.~29.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코엑스)
- 워크넷 최신 서비스 소개, 지역자치단체
일자리사업 우수사례 전시 등

2.18.~20. 혁신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한국-
월드뱅크 협력주간(Korea - WBG
Partnership Week on Innovation
and Technology) 행사 참여
- 워크넷 등 원 사업 소개 및 부스운영

~2월 말 공무직 및 계약직 채용(면접전형 완료)





2.4.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한국폴리텍대학-청년재단-한국산업인력공단 MOU 체결

2.5. 제22회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창립 기념 행사

1.16.~17. 제2회 TVET CAMPUS 포럼

1.17. 대전세종충남 총장협의회 신년하례회

1.21. 2020년도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컨퍼런스

1.2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0년 신임 총장 연찬회

1.28. 미래형 공학교육 선도대학 혁신벨트 구축 업무 협약식

2.13.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 2020 전국고등학교장 연수

2.21. 2019학년도 학위수여식

2.27. 2020학년도 입학식

직업능력심사평가원

1.28.~2.11. '20년도 훈련기관 인증평가 신청 및 접수

2.26. '20년도 상반기 운영과정 통합심사 이의심사 결과공고

1.31.~2.10. '20년도 원격훈련 (인터넷/우편/스마트) 1차 심사 접수

2.3.~2.10. '20년도 3차 훈련이수자 평가 신청

1.9.~10. 매력적인 직업계고 지원(매직) 사업 시도교육청 담당자 워크숍

1.16.~17. 직업계고 현장실습 중앙 컨설팅단 3차 워크숍

1.29.~1.31. 2019년도 마이스터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피드백 권역별(경인·호남·충청) 컨설팅

1.30. 제4차 평생학습체제 법령 포럼

2.4.~10. 2019년도 마이스터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피드백 권역별(대구경북·부산경남) 컨설팅

2.7. 마이스터고 대상 2020년 고교학점제 수상 신청 시스템 활용 연수

2.14. 2020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정부부처·유관기관 정책 협의회

2.20. 직업계고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정책 설명회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따세요!



과정평가형 자격, 들어보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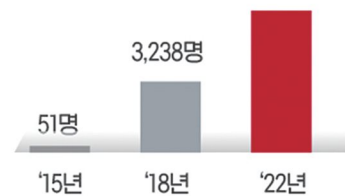
암기위주의 기존 검정형 자격과는 다른 ‘현장 중심’의 자격 취득방식입니다.



실무중심 교육 훈련을 수료하고, ‘얼마나 많이 아는지’ 보다 ‘얼마나 잘 하는지’를 평가받은 다음 딸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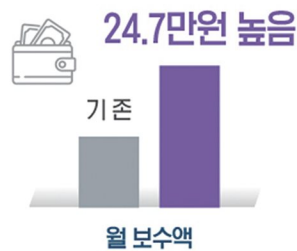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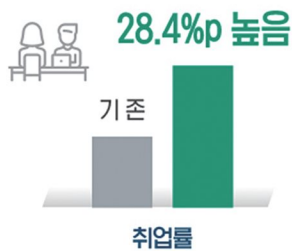
취득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6만명 목표



과정평가형 자격은 이래서 좋아요!

※ 검정형 자격 취득자와 비교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 이렇게 딸 수 있어요!

1.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과정 모집 시 신청(학교, 훈련기관 등) →
2. NCS 기반의 실무중심 교육·훈련 이수 →
3. 교육·훈련 이수 중 수시로 내부평가 진행 →
4. 교육·훈련과정 종료 후 외부평가 응시 →
5. 내부·외부평가 합산 80점 이상 시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

※ 기존 검정형 자격과 달리 지정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충실히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내부·외부평가를 통해 평가합니다.

★ 더 많은 정보는 “씨큐넷” (C.Q-net.or.kr)에서 만나보세요~